



전라남도는 8월 29~30일 불교계 언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교 순례길 팸투어를 실시했다. 사진 왼쪽은 이튿날 배롱나무꽃이 만개한 구례 화엄사 모습. 사진 오른쪽은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량 스님이 팸투어단을 위해 사찰 곳곳을 소개하는 모습.

천고마비 계절… 남도서 마음 살찌우자

전라남도 불교 순례길 팸투어 현장

사나운 폭염이 지나간 자리에 반가운 가을이 찾아왔다.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 새하얀 구름이 넘실거리고, 산들바람에 벼 이삭이 춤을 추며 익어간다. 곳곳에 수놓은 붉은 배롱나무가 마침내 남도 가을의 정점을 찍는다.

8월 29~30일 전라남도청은 불교계 언론인 초청 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 실시했다. 불교계 언론 종사자 15명과 신도 12명은 이틀 간 5개 시 · 군 6개 사찰을 돌아보며 이른 가을을 만나고 왔다.

오전 9시 서울 조계사서 출발한 버스가 약 4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법성포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법성포는 굴비로 유명하지만, 사실 백제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곳으로 역사적 유서가 깊다.

영광군은 1998년 학술고증(동국대학교)을 통해 이곳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란 사실을 밝혀냈고, 이후 간다라유물관, 탑원, 부용루, 사면대불 등을 갖춘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특히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엔 항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백제 전통 의상 체험도 가능해 어린이 ·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 단위에 큰 인기다.

이날은 서복진 해설사가 팸투어단을 위해 백제불교 역사, 전남 내 주요 사찰 역사 등을 소개했다.

서 해설사는 "영광군엔 4대 종교 성지가 있다"며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를 비롯해 원불교 영산성지, 기독교인 순교지 등이다. 세계적인 종교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원불교 영산성지'는 원불교 발상지로,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탄생해 구도한 곳이다. 또한 '기독교인 순교지'는 6.25때 북한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던 194명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다.

참가자들은 미처 몰랐던 사실들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감탄사를 내뱉으며 경청했다.

김승희(59) 씨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해설사들이 직접 설명해주니 너무 좋다"며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와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흐뭇해했다.

태양에 반짝이는 법성포 갯벌을 뒤로한 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를 내달리면 불갑사에 이른다. 불갑산 자락에 위치한 불갑사는 가을이면 상사화로 뒤덮여 장관을 이룬다. 매년 가을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불갑사 일대서 9월 16~18일 진행된다.

팸투어단을 위해 직접 불갑사 역사를 설명해 준 주지 만당 스님은 "남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역사 깊은 곳을 순례하는 일은 매우 의미 깊다"며 "불교가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을 강조하듯, 이번 순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삶과 내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첫날 마지막 일정은 송광사 템플스테이였다.

불교계 언론인 등 27명 초청
8월 29~30일 6개 사찰 순례
불갑사 · 송광사 · 태안사 등
가을꽃 만개해 관광객 줄이어

송광사 예불은 장엄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터. 참가자들은 서둘러 저녁 공양을 마치고 범종루 앞으로 모여들었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북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지자 붉은 노을도 잠시 어둠을 막아서고 대웅전 앞마당을 지켰다.

마침내 예불을 마친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관으로 이동, 송광사 포교국장 각안 스님과 차담을 나눴다. 일배(一拜)로 예를 표한 참가자들에게 맞절로 환영한 각안 스님은 송광사의 역사부터 대웅전 삼세제불(三世諸佛), 승보종찰의 의미 등을 설명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각안 스님은 "난 항상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며, 육신이 소우주라 생각한다. 모든 우주만물이 마음에 있다고 믿으며 수행한다"며 "분별심 없는 마음으로 이 순간의 나를 관찰하며 근본을 찾을 때 내가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엔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량 스님이 직접 '사찰 해설가'로 나섰다. 무량 스님은 이른 아침부터 사찰 곳곳을 다니며 송광사 내 보물들과 전각들을 자세하고 친절히 설명해 참가자들은 큰 만족감과 함께 감사함을 표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송광사 국사전(제작연도 1404년경, 국보 56호)에 들어간 팸투어단은 그 위엄에 압도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국사전은 송광사서 주석한 국사 16분의 영정을 모시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김재일 상명대 교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송광사를 여러 번 왔지만 스님께서 설명해주시니 더욱 깊은 역사와 의미를 알게 됐다"며 "특히 동행자들과 함께 정겨움을 나누니 1박2일이 참 짧다.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단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운력을 마친 참가자들은 광양 성불사, 구례 화엄사, 곡성 태안사를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다.

광양 성불사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해 조금은 지친 팸투어단의 피로를 싹 씻겨줄만한 절경을 자랑했다. 굽이진 산 능선과 법당의 처마 끝의 조화는 마치 하늘 위 음률이 그려지는 듯 했다.

성불사 주지 법광 스님은 "임진왜란과 6.25전쟁 등을 거치며 사찰이 훼손되기도 하고 규모가 많이 축소됐으나, 1000년 전 도선국사가 창건해 40여개 암자를 간직했던 깊은 역사를 갖는 사찰"이라며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팸투어단은 마지막 코스인 곡성 태안사에 이르자 주지 스님과 종무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산중 사찰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멀리 서울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경내를 가득히 채우고도 남았다.

주지 각초 스님은 대웅전 참배를 마친 참가자들에게 "차 한 잔 하시렵니까"라 물으며 방으로 안내했다. 각초 스님은 오미자차를 건네며 "나라가 어지럽고 심신이 힘들 때 태안사로 오셔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십시오"라며 웃어보였다.

한편 전라남도는 "9월 추석 이후부터 전남 광역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와 연계해 순례길 코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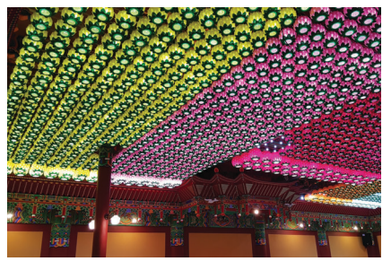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